

40년째 공사중인 가거도 방파제 또 '태풍 水難'

슈퍼방파제 내년 완공 앞두고 태풍 습격에 사석 1만3000㎡ 유실 목포해수청 "공사 큰 지장 없다"…주민들 "완공 또 늦어지나" 불안

40여 년간 끊임없이 방파제 공사를 반복하고 있는 신안군 가거도항이 또다시 태풍의 습격을 받아 공사 자체 일부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항만 조성을 담당하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해수청)은 공사에 큰 지장이 없다고 밝혔지만, 오랜 시간 방파제 완공을 기다려온 가거도 주민들은 불편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그 어느 곳보다 거친 가거도 바다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유일한 수단은 방파제뿐이기 때문이다.

23일 행정안전부와 목포해수청 등에 따

르면 지난 20일 제5호 태풍 '다나스'로 인해 가거도항 복구공사 현장 한켠에 쌓여있던 방파제 사석(틈을 채우는 돌) 1만3000㎡가 유실됐다. 유실된 사석은 지름 25~30cm로, 무게는 개당 10~20kg에 달하지만 너울성 파도에 쓸려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태풍은 진도 서쪽 50km 앞바다에서 열대저기압부로 약화됐지만 국토 최서남단 섬인 가거도는 태풍이 소멸하기 전까지 고스란히 피해를 받았다. 당시 가거도 일대에서는 최대 높이 6m 파도와 최대 풍속

20m/s 바람이 관측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파제 기초공사 재료인 사석 상당량을 잃었지만 목포해수청은 "공사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해수청은 유실 규모 파악과 함께 재산 손실 대처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방파제 공사는 내년 말 완공이 목표이며 현재 공정률은 65%다.

목포해수청 입장과 달리 가거도 주민들은 안심하지 못하는 목소리다.

신안군 가거도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40년 간 공사만 지켜보고 있는 가거도 주민들은 이번에 또 태풍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에 놀라 공사 기간이 늘어나지 않는지 관련 문의전화를 해왔다"며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안전한 방파제 건설을 바라

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에서 서쪽으로 150km 떨어진 가거도항은 3개 마을에 주민 503명(341세대)이 거주하고 있는 작은 섬이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까닭에 태풍 등 기상악화 때 동중국해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긴급대피처이자 보급기지이다.

정부는 1978년 가거도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고, 1300억여원을 들여 1979년부터 지난 2008년까지 30년에 걸쳐 방파제를 조성했다.

하지만 방파제는 완공 4년 만인 지난 2011년 8월 태풍 '루피'에 이어 이듬해 8월 태풍 '볼라벤'이 덮치며 전체 480m 중 350m 구간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가거도항에 초대형 태풍에도 끄떡없는

'슈퍼 방파제'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며, 지난 2013년부터 1620여 억원이 투입되는 복구·증축공사에 들어갔다.

아파트 9층 높이에 맞먹는 2만4000t급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케이슨'(가로28m·세로 28m·높이 28m) 16개를 설치해 방파제 너비를 15m에서 108m로, 높이를 12m에서 46m로 높이는 중이다. 현재 케이슨은 14개가 설치된 상황으로, 내년 1월까지 16개 모두 고정작업이 완료될 계획이다.

당초 완공 목표는 2018년 말이었지만 도급사간 법적 분쟁, 공법 변경 등으로 인해 2020년 말로 늘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술 취해 어선 사고 낸 선장 구조요청했다 음주 적발

목포해경은 23일 만취 상태로 자신의 어선을 몰다 충돌 사고를 낸 선장 A(40)씨를 음주운항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새벽 5시경에 소주를 마신 후 같은날 오전 9시50분경 혈중 알코올농도 0.244% 상태로 어선을 몰아 진도군 죽도 북서쪽 930m까지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10분경 진도군 서방향 방파제 앞 600m 해상에서 팽목항 공사를 위해 설치한 오락방파제와 충돌했다. A씨는 스크류에 걸려 빠져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게 되자, 해경에 구조요청을 하며 음주 운항 사실이 적발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근로정신대시민모임, 미쓰비시중공업 압류재산 매각절차 돌입

대전지법에 매각 명령 신청 아베 말 바꾸기 강력 규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압류재산 매각절차에 들어갔다.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은 23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미쓰비시중공업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대전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총 8억 400여만원 상당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다. 법원이 이를 경매에 부쳐 낙찰자가 대금을 입금하면 피해자에게 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모임은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06년 12월 14일 후쿠시마 미즈호 참의 원인이 제출한 '조선인노무자 등에 대한 미 불금 등 취급에 관한 질문주의서(主意書)'와 답변서의 번역본을 공개하며 "일본

아베 총리는 지난 2006년 제90대 총리를 역임할 때 1965년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 5억 달러 중 무상으로 준 3억 달러를 한일청구권과 별개라는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아베는 지금에 와서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식적으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 문제가 끝났다면 2009년 피해자들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은 왜 지급했겠는가"라며 "아베 총리는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일고 학생들도 일본제품 불매운동 동참

역사동아리 학생 20여명 1박2일 서울 집회 참여도

광주제일고등학교 학생들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 동참에 나선다.

광주제일고 학생회는 23일 교내에서 열린 방학식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등에 대한 부담함을 알리며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우리 고등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자"고 제안했다. 서은상 학생회장은 "고등학생으로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나라를 위

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학생회에서 논의해 불매운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학생회는 SNS 등을 통해 불매운동 참여를 제안하는 운동을 벌이고, 학생들이 참여해 운영하고 있는 교내 사회적협동조합에서도 일본 기업의 음료 3가지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또 역사동아리 학생 20여명은 2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에 참여하는 등 역사 바로 알기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경유 유출 유조선 적발

여수해경은 23일 다른 선박에 기름을 공급하다 바다에 기름을 유출하고 도주한 유조선 A호(149t) 선장 B(63)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집야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물양장에서 유조선 A호에서 다른 유조선 C호(320t)에 기름을 공급하던 중 A호에 설치된 이송호스 결합장치가 빠지면서 바다에 경유 96 t를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김창희 기자 chkim@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23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한국국토정보공사 중부지사 사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반을 뚫는 중장비인 항타기가 옆으로 넘어져 차량을 덮쳤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 공사현장 중장비 넘어지며 차량 덮쳐 '아찔'

운암동서 운전자 등 2명 부상 전신주도 파손 인근 한때 정전

도심 공사현장에서 중장비가 쓰러져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쳤다. 인근에 고등학교도 있어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23일 오전 9시 30분경 광주시 북구 운암동 한국국토정보공사 중부지사 사옥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m 짜리 지반을 뚫는 천공 중장비인 항타기(driving pile machine-抗打機)가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K5승용차 운전자 조모(36)씨와 항타기 기사임모(52)씨가 다쳐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씨는 허리를 다치고 임씨는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생명이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타기는 옆으로 쓰러지면서 공사 현장 철관 가림막을 넘어 항타기 뒷부분이 도로를 침범했다.

도로를 넘어 쓰러지는 항타기 뒷부분이 주행중이던 승용차를 덮치고 전신주의 전선과 엉키면서 전신주까지 넘어 쓰러 주변 상가와 주택에 한때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북부경찰과 북구에 따르면 공사에서 현장 지반에 지주를 박기 위해 구멍을 뚫던 중, 다음 구멍을 뚫기 위해 항타기를 옮기는 과정에서 옆으로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항타기 밑에 깔아놓은 철판이 지속적인 비로 인해 일부 내려앉은 지면 탓에 균형을 잃으면서, 철판 위에 있던 항타기가 넘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평소 행인이 많은 곳인데다 고등학교가 있는 상가 밀집지역이어서 만약 발생 시간이 출퇴근 시간대였으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사고 현장은 면적인 2300㎡로 갈리인이

상주해야 하는 규모(5000㎡ 이상) 이하이지만 보행자의 통행량, 학생의 통학로, 주택가와 상가밀집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좀 더 촘촘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북구 건축과 관계자는 "이 공사 현장은 건설 규모가 크지 않아 갈리인이 상주하지 않는 현장이다"며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사 현장을 제대로 감독했으리라 어느 정도 믿고 맡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 안전조치 문제 여부를 조사해 현장 책임자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테이저전 후대한 채 근무지 이탈 경찰 "집에서 깜빡 잠들어서..."

○...경찰이 테이저전(전기충격기)을 후대한 채 근무지를 이탈한 후 연락까지 끊기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

○...23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는 지난 21일 오후 8시30분경 출근을 한 뒤 자정께 테이저전과 3단봉, 수갑 등을 반납하지 않은 채 근무지를 이탈한 뒤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

○...22일 오전에 복귀한 A경위는 "허리가 아파 집에서 잠시 쉬고 나오려 했는데 잠이 들어 버렸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A경위를 징계할 방침.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